

## 옹관장의 일례

### (甕棺葬의 一例)

- 삼국시대 석곽묘에 매장된 옹관 -  
(三國時代 石槨墓에 陪葬된 甕棺)

尹 容 鎮

〈慶北大學校 文理大教授〉

몇 년 전<sup>1)</sup>(年前) 경북대학교(慶北大學校) 근방(近方)에 산재(散在)하고 있는 선사유적(先史遺跡)을 답사(踏查)하다가 우연(偶然)히 개간중(開墾中)에 있는 한 구릉(丘陵)에서 합구식옹관(合口式甕棺)이 석곽식고분(石槨式古墳)속에 매장(陪葬)되어 있는 것을 발견(發見)하였다.

옹관장(甕棺葬)의 발견예(發見例)는 한반도(韓半島)에서 그리 많지 않으며 더욱이 대구지방(大邱地方)에서의 발견(發見)은 이번이 처음이 된다. 발견(發見)된 옹관(甕棺)이 옹관묘(甕棺墓)로서 주체(主體)를 이루지 않고 석곽묘(石槨墓)에 매장(陪葬)된 옹관(甕棺)이고 또 매장시기(埋葬時期)가 철기시대(鐵器時代)에 들어온 시기(時期)의 것이기는 하나 옹관장(甕棺葬)의 풍속(風俗)이 삼국시대초기(三國時代初期)의 대구(大邱)에 존재(存在)하였음을 확인(確認)하는데 한 자료(資料)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전역면(韓半島全域面)에서도 옹관장(甕棺葬)에 관(關)한 시공적(時空的) 위치(位置) 및 장법상(葬法上)의 성격(性格) 등(等)을 연구(研究)하는데 한 자료(資料)가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늦게나마 소개(紹介)하여 옹관장(甕棺葬) 고찰(考察)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이다.

애석(哀惜)하게도 발견직시(發見直視)에는 거의 복원(復原)이 가능(可能)한 상태(狀態)로 유존(遺存)되어 있었던 것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에 파괴분산(破壞分散)되어 옹관자체(甕棺自體)의 완전(完全)한 실측(實測)과 유물자체(遺物自體)의 채집(採集)을 불가능(不可能)케 해버렸다. 다행(多幸)히 처음 발견시(發見時)에 찍어두었던 사진(寫眞)과 간략(簡略)한 실측(實測)이 있어서 자료기록(資料記錄)에는 큰 지장(支障)을 주지 않았다.

#### 1. 출토지(出土地)의 환경(環境)

출토지점(出土地點)은 경북대학교(慶北大學校)에서 북(北)쪽으로 약(約) 1km로 떨어진

1) 造塔洞發掘, 考古美術 4卷 11號, 1963年 11月

소구릉(小丘陵)이며 지번(地番)은 대구시 북구 북현동(大邱市 北歐 伏賢洞) 산 515번(番)이다. 지금은 이 지번일대(地番一帶)가 포도원(葡萄園)으로 되어있는데 과원(果園)으로 개간(開墾)되기 전(前)은 구릉(丘陵)의 동향사지(東向斜地)에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소형원분(小形圓墳)이 수십기(數十基) 유존(遺存)하고 있었다. 지금도 포도원외역(葡萄園外域)에 십수기(十數基)가 남아 있기는 하나 거의 도굴파괴(盜掘破壞)되어 내부석곽(內部石槨)이 노출(露出)하고 완전(完全)한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있다.

이들 고분(古墳)의 외형규모(外形規模) 및 내부구조(內部構造)를 개관(概觀)하면 자연유토(自然流土)가 심(甚)해서 현재(現在) 전고(全高)가 모두 1m 미만(未滿)이고, 직경(直徑)은 5 내지(乃至) 6m 정도이다. 내부(內部)는 천석(川石) 또는 할석(割石)을 이용(利用)하여 석곽(石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크기는 보통(普通) 장(長)이 3내지(乃至) 4m 정도이고 폭(幅)은 1m 내외(內外), 높이는 0.5m 내외(內外)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석곽(石槨)은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수혈식석실(竪穴式石室)보다 선행(先行)되어 나타나는 형태(形態)의 것들이다. 이곳 고분(古墳)가운데 몇 기(基)의 고분(古墳)에는 석곽내부(石槨內部)의 높이는 1m 정도로 한 것이 있기는 하나 전형적(典型的) 수혈식실(竪穴式石室)에 비(比)하면 아직 규모상(規模上)으로 작다. 석곽내(石槨內)에 부장(副葬)했던 유물(遺物)의 내용(內容)에 대(對)해서는 정식발굴(正式發掘)을 해보지 못하여 정확(正確)히 말할 수 없으나 지표상(地表上)에 파편(破片)으로 노출(露出)된 유물(遺物)들을 통(通)해서 대충 알 수 있었다. 소위(所謂) 신라식토기(新羅式土器)라고 통칭(通稱)해온 경질토기류(硬質土器類)다. 녹로(轆轤)를 사용(使用)해서 만든 적색(赤色)의 연질토기류(軟質土器類)가 부장(副葬)되었고 철기류(鐵器類)는 극(極)히 드물었다. 실제(實際) 옹관(甕棺)이 배장(陪葬)됐던 고분내(古墳內)의 두 석곽(石槨)에서도 철물(鐵物)은 전(全)혀 없고 적색연질토기(赤色軟質土器)와 견질(堅質)의 신라식토기(新羅式土器) 및 방추차(紡錘車)만이 발견(發見)되었다. 이곳 고분(古墳)에 관(關)해서는 관찰(觀察)할 수 있었던 범위내(範圍內)에서 간략(簡略)하게 설명(說明)하였거니와 이 외(外)의 것에 대(對)해서는 즉(卽) 석곽식분묘외(石槨式墳墓外)의 다른 유적(遺跡)은 전(全)혀 없었다.

한편 이곳 석곽묘(石槨墓)와 같은 형태(形態)로 된 묘군(墓群)은 대구합지내(大邱盒地內)에서 여러군데 찾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確認)된 것을 열거(列舉)하면

### 1. 산격동(山格洞) 연암산(燕巖山)동남구릉지대(東南丘陵地帶)

현(現) 도청사(道廳舍)가 있는 뒷산(山)에서 북동(北東)쪽으로 옹관(甕棺)이 발견(發見)된 북현동(伏賢洞)쪽으로 연속(連續)되는 저구릉상(低丘陵上)에 군집(群集)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석곽식고분(石槨式古墳) 외(外)에 규모(規模)가 더욱 작은 석관식고분(石棺式古墳)[석관(石棺)은 내부장(內部長)이 2m 미만(未滿), 폭(幅)이 0.5m 미만(未滿), 고(高)가 0.5m 미만(未滿)으로서 석판(石板)을 세워서 상형(箱形)으로 만들었다.]이 있다. 노출(露出)되는 부장품(副葬品)으로 보아서는 석곽묘(石槨墓)의 부장품(副葬品)과 구분(區分)이 안되었다.

### 2. 비산동(飛山洞) 날뫼 일대(一帶)

일명(一名) “날뫼”라고도 불리우는 곳으로서 현(現) 비산동(飛山洞) 카톨릭 성당(聖

堂)이 있는 뒷산 일대(一帶)에 석곽식고분(石槨式古墳)이 많았다. 현재(現在)는 주택(住宅)이 조성(造成)되어 거의 흔적(痕跡)을 잃고 있다.

### 3. 대명동(大明洞)

현(現) 영남대학교부근(嶺南大學校附近)에서 교육대학(教育大學)까지의 사이에 형성(形成)된 저구릉(低丘陵)에 많았다. 모두 석곽식묘(石槨式墓)였으나 지금은 주택(住宅)이 들어서서 흔적(痕跡)을 잃고 있다.

### 4. 상동 구릉(上洞 丘陵)

현(現) 수성지동편(壽城池東便)에 저수지(貯水池)에 접(接)해서 형성(形成)된 작은 구릉일대(丘陵一帶)에 마련한 묘군(墓群)으로서 거의 파괴(破壞)되어 소수(小數)만이 흔적(痕跡)을 남기고 있다. 여기서는 석곽식(石槨式)과 석관식(石棺式)의 것이 공존(共存)한다.

### 5. 만촌동 구릉(晩村洞 丘陵)

동재유원지(東材遊園地)의 일부(一部)로 사용(使用)되고 있는 구릉(丘陵)으로서 청동과(靑銅戈)와 세형동검(細形銅劍)이 출토(出土)<sup>2)</sup>된 바도 있는 지역(地域)이며 석곽묘(石槨墓)가 구릉상(丘陵上)에 산재(散在)한다.

대구시내(大邱市內)서의 전기지역외(前記地域外)에도 구릉상(丘陵上)에 점점(點點)히 산재(散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비교적(比較的) 많이 군집(群集)한 것만 기재(記載)하였다. 그리고 이들 석곽묘군(石槨墓群)이 있는 구릉(丘陵)에는 지석묘(支石墓) 또는 수혈식석실묘(竪穴式石室墓)와 같은 이질적(異質的) 묘(墓)가 없고 석곽식(石槨式) 또는 석관식(石棺式)만이 군집(群集)하고 있는 것이 특색(特色)이다. 대구합지내(大邱盒地內)에는 지석묘석관묘(支石墓石棺墓) 석곽묘(石槨墓) 수혈식석실묘(竪穴式石室墓) 등(等)에 여러 곳에 동일양식(同一樣式)의 묘(墓)끼리 군(群)을 지워 유존(遺存)하는데 석곽묘(石槨墓)는 전기(前記) 5개(個)지역(地域)과 복현동묘군외(伏賢洞墓群外)에 수혈식고분군(竪穴式古墳群)으로서 알려진 지산동 고분군(池山洞 古墳群) 불노동 고분군(不老洞 古墳群) 내당동 고분군(內唐洞 古墳群) 지역내(地域內)에도 있다. 그러나 혼재(混在)된 현상(現象)이 아니고 서로 군(群)을 지워 상접(相接)한 형상(形相)을 하고 있어 구역화(區域化)된 느낌을 준다. 한편 석곽묘(石槨墓)는 규모상(規模上)에 있어서는 물론(勿論) 부장내용(副葬內容)에 있어서도 석실묘(石室墓)나 지석묘(支石墓)와 다르다. 석실묘(石室墓)와 비교(比較)할 때 계급적 차이(階級的 差異)나 시대적 차이(時代的 差異)나 하는 문제(問題)가 생기는데 이에 대(對)해서는 다시 고(稿)를 달리하여 고찰(考察)할까 하는 바이나 결론적(結論的)으로 말하면 시대적 차이(時代的 差異)에서 오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래서 옹관(甕棺)을 배장(陪葬)한 복현동고분군(伏賢洞古墳群)은 수혈식석실고분(竪穴式石室古墳)보다 선행(先行)해서 축조(築造)된 석분(石墳)의 일군(一群)으로 보아진다.

## 二. 옹관(甕棺)의 매장상태(埋葬狀態)

2) 尹武炳 大邱 晩村洞出土의 銅戈, 銅劍 震檀學報 29, 30 合併號

발견동기(發見動機)에서 언급(言及)한 바 있거니와 정식발굴(正式發掘)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개간중(開墾中)에 노출(露出)된 것이며 또 그나마도 조사도중(調查途中)에 실물(實物)이 파괴(破壞)되었기 때문에 본의(本意)아니게 충실(充實)한 조사(調查)를 못하였다.

옹관(甕棺)의 출토상황(出土狀況)을 보면 삼강일(插岡日)의 평면도(平面圖)에서 보듯이 상접(相接)한 두 석곽(石槨)의 동남공지(東南空地)에 매장(埋葬)되어 있었다. 서편(西便)의 석곽(石槨)은 장축(長軸)을 남북(南北)으로 향(向)하게 하고 곽측벽(槨側壁)은 할석(割石)을 써서 장방형(長方形)으로 하되 내부(內部)의 장(長)은 4m, 폭(幅)은 1.2m 고(高)는 0.5m로 하였고 부정형(不整形)의 장방석(長方石) 또는 판석(板石)을 곽(槨)위에 횡가(橫架)하여 개석(蓋石)으로 하고 있다. 곽저면(槨底面)은 별(別)다른 시설(施設)이 없었던 듯하며 양단(兩端)의 단벽(短壁)에 접근(接近)하여 신라식 토기(新羅式 土器)의 고배(高杯) 및 소호(小壺) 그리고 적색연질(赤色軟質)의 소호류(小壺類)가 몇 개식(個式) 놓여 있었다. 피장자(被葬者)가 누웠으리라 볼 수 있는 중앙부(中央部)는 아무런 부장물(副葬物)이 없고 다만 바닥이 얇은 흑색토층(黑色土層)을 이루었을 뿐이다. 동편석곽(東便石槨)은 서편석곽(西便石槨)의 북반(北半)에 접(接)하여 서곽(西槨)의 동벽(東壁)을 서편곽(西便槨)의 한 곽벽(槨壁)으로 삼아 동남북(東南北)의 삼방(三方)만 할석(割石)을 영성하게 둘러 곽(槨)을 만들고 있다. 이 사곽(四槨)은 곽벽(槨壁)만이 조난(粗難)한 것이 아니고 개석(蓋石)도 없고 크기에 있어서도 남북장(南北長)이 약(約) 2m 폭(幅)이 약(約) 0.7m 고(高)가 0.3m 밖에 안되는 작은 것이다. 곽저(槨底)에는 남북단벽(南北短壁)에 접(接)해서 신라식토기(新羅式土器)인 견질(堅質)의 장두호(長頭壺), 고배(高杯) 및 적색연질(赤色軟質)의 소호(小壺), 방추차(紡錘車)가 놓여있고 중앙부(中央部)는 역시(亦是) 흑색토층(黑色土層)이 깔려 있다. 동서(東西)의 양곽(兩槨)에서 소형(小形)의 토기류(土器類)만 4,5 개식(個式) 출토(出土)하였을뿐 철기류(鐵器類) 등(等) 금속류(金屬類)는 전(全)혀 없고 다만 방추차(紡錘車)만이 개출토(個出土)하였다.

옹관(甕棺)은 서곽(西槨)에서 보면 동벽외연(東壁外緣)에 위치(位置)하며 동곽(東槨)에서는 남(南)쪽 곽외(槨外)에 위치(位置)한다. 동곽(東槨)의 장(長)이 짧음으로서 생긴 공지(空地)에 옹관(甕棺)을 배장(陪葬)한 셈이다. 옹관(甕棺)의 장축(長軸)은 남북선(南北線)에서 약간 도라져서 남옹(南甕)이 남서간(南西間)을 향(向)하고 있다. 합구식(合口式)으로 된 이 옹관(甕棺)은 서곽(西槨)의 측벽(側壁)을 이루는 하부석(下部石)과 접(接)하여 수평(水平)으로 놓여 있었다. 노출당시(露出當時)의 옹관장(甕棺葬)은 64cm 가장 좁은 합구부분(合口部分)의 경(經)이 약(約) 30cm이며 남곽(南槨)의 구연부(口緣部)가 북옹(北甕)에 삽입(插入)되어 있었다. 옹기자체(甕器自體)를 보면 남옹(南甕)은 사입(砂入)이 없는 고운 점토질(粘土質)로 구운 연질토기(軟質土器)이며 표면(表面)에는 송석문(繩蓆文)이 있는 적색토기(赤色土器)이다 두께는 약(約) 6mm이고 기형(器形)은 장란형(長卵形)으로 되어서 바닥은 뽀죽한 감(感)을 주는 단저(丹底)이고 구연(口緣)은 외반(外反)한다. 구연부(口緣部)의 외반상태(外反狀態)는 삽입(插入)시키기 위(爲)해 원래 떼어버려졌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토기자체(土器自體)가 원래 연질(軟質)이어서 파편(破片)을 주어도 복원(復原)은 불가능(不可能)하였다. 북옹(北甕)은 남옹(南甕)과는 달리 소성도(燒成度)가 와질(瓦質)에 속(屬)한다. 기형(器形)은 평저(平底)에다. 구연부(口緣部)를 짧게 외반(外反)시킨 형(形)이고 두께는 약(約) 6mm된다. 동체측면(胴體側面)에 우

각형(牛角形) 손잡이가 2개(個) 달려 있다. 표면(表面)은 역시(亦是) 승석문(繩蓆文)을 가지고 색(色)은 회색(灰色)이다. 옹관내(甕棺內)에는 아무런 유물(遺物)이 없었으나 속에 가득찬 세토(細土)에 흑색(黑色)의 층(層)이 아랫쪽에 형성(形成)되어 있는 것을 보아 유기질(有機質)의 부식(腐蝕)이 있었음을 반증(反證)한다.

### 三. 후 기(後記)

출토상황(出土狀況)에서 설명(說明)한 바와 같이 두 곽(槨)의 동일봉분내(同一封墳內)에 합장(合葬)한 형식(形式)이며 여기에 옹관(甕棺)이 배장(陪葬)되어 있는 것이다. 두 석곽(石槨)의 상호관계(相互關係)는 부부(夫婦)로 봄이 타당(妥當)하여 유구상태(遺構狀態)로 보아 동곽(東槨)이 뒤에 추장(追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동곽(東槨)이 작다는 것과 방추자(紡錘車)를 부장(副葬)한 것을 볼 때 동곽(東槨)이 여자(女子)고 서곽(西槨)이 남자(男子)로 추측(推測)된다. 한편 옹관(甕棺)의 크기로 보아 유아(幼兒)를 매장(埋葬)한 것으로 추정(推定)되는데 아마 산모(產母)와 같이 사망(死亡)했는지 또는 산모사망후(產母死亡後) 얼마 뒤에 유아(幼兒)가 사망(死亡)하여 같은 봉토(封土)에 매장(埋葬)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묘조성시기(墓造成時期)에 대(對)해서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수혈식석실묘(堅穴式石室墓)와 비교(比較)했을 때 석곽내(石槨內)에 부장(副葬)된 토기(土器)가 석실묘(石室墓)에서 출토(出土)되는 토기(土器)와 같은 계통(系統)의 것이기는 하나 무기류(武器類)를 위시한 금속류(金屬類)가 전(全)혀 없다는 점(點) 또 방추자(紡錘車)가 부장(副葬)되어 있었다는 점(點) 그리고 묘구자체(墓構自體)가 석곽식(石槨式)이었다는 점(點) 등(等)을 보아서 석실고분(石室古墳)보다는 선행(先行)된 시기(時期)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고총내(高塚內)에 배장(陪葬)된 옹관출토(甕棺出土) 예(例)를 보면 낙랑(樂浪)의 전곽묘(塹槨墓)<sup>3)</sup>에 있고 남(南)쪽에 내려와서 안동(安東)<sup>4)</sup>조탑동고분군(造塔洞古墳群)에서 석곽묘(石槨墓)와 같이 출토(出土)하였으며 또 월성서면방내리고분<sup>5)</sup>군(月城西面芳內里古墳群)에서 적석총(積石塚)과 같이 출토(出土)한 바 있다. 김해패총출토(金海貝塚出土), 신창리출토(新昌里出土), 동래출토(東萊出土)의 옹관(甕棺)도 있으나 이는 배장(陪葬)된 형식(形式)의 것이 아닐뿐더러 시대적(時代的)인 차(差)가 있어서 별도(別途)로 논의(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고총(高塚)에 배장(陪葬)된 것에만 한(限)하여 끝으로 공통성(共通性)을 찾아 보기로 한다. 첫째 고총(高塚)에 배장(陪葬)된 옹관(甕棺)은 지금까지의 자료(資料)로 보아서 모두 소아(小兒) 또는 유아(幼兒)이고, 둘째 대인(大人)의 유구(遺構)가 있어서 거기에 배장(陪葬)된 형태(形態)로 나타난다는 것. 셋째 묘주(墓主)는 당시(當時) 발달(發達)된 용기류(容器類)를 부장(副葬)하였음에도 옹관용(甕棺用)의 용기(用器)는 재래식(在來式)인 와질(瓦質) 또는 적색연질(赤色軟質)의 토기(土器)를 이용(利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옹관장(甕棺葬)에 대(對)한 의식(儀式)이 고총시대(高塚時代)에 들어왔음에도 아직 용기(容器)에 있어서는 변모(變貌)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끝으로 석곽조성시기(石槨造成時期)에 대(對)해서 추기(追記)해 들 것은 지금까지 고

3) 三上次男 中國古代의 甕棺墓 中國古代史研究  
 4) 奏弘燮 安東造塔洞古墳發掘 考古美術  
 5) 1968年 冬期發掘 未發表 文化財管理局調査

총(高塚)에 대(對)한 방사성(放射性) 탄소(炭素)에 의(依)한 연대측정(年代測定)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仁 同	1號墳	1730	160年 <sup>6)</sup>
皇吾里	34號墳	1680	115年 <sup>7)</sup>
"	35號墳	1760	125年
"	37號墳	1620	120年

이들은 석실묘(石室墓) 또는 적석총(積石塚)들로서 모두 고총(高塚)으로서는 성행기(盛行期) 것들이다. 연대(年代)는 3세기(世紀)에서 4세기(世紀)에 해당(該當)하는 것이라 석곽묘(石槨墓)는 이보다 훨씬 앞서는 연대(年代)라야 한다. 견질토기(堅質土器)가 출토(出土)는 웅천패총(熊川貝塚)<sup>8)</sup>의 경위는 1세기경(世紀頃)이라 했는데 웅천(熊川)에서는 석곽식고분(石槨式古墳)이 대부분임을 고(考)려 한다면 이곳 복현동웅관(伏賢洞甕棺) 및 석곽묘(石槨墓)는 늦어도 2, 3세기(世紀)사이의 어느 시기(時期)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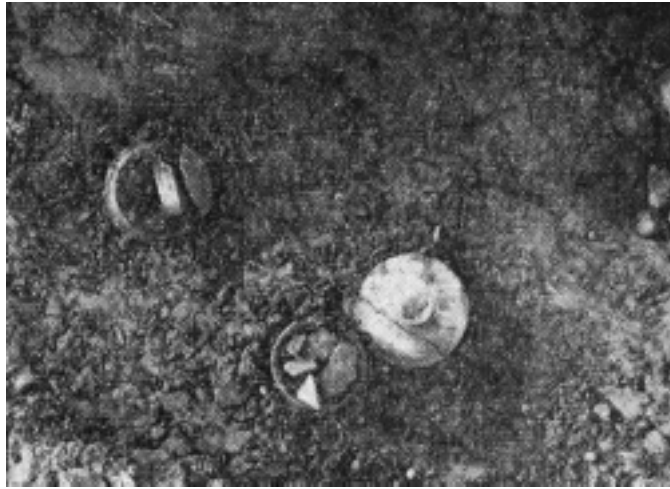


<웅관(甕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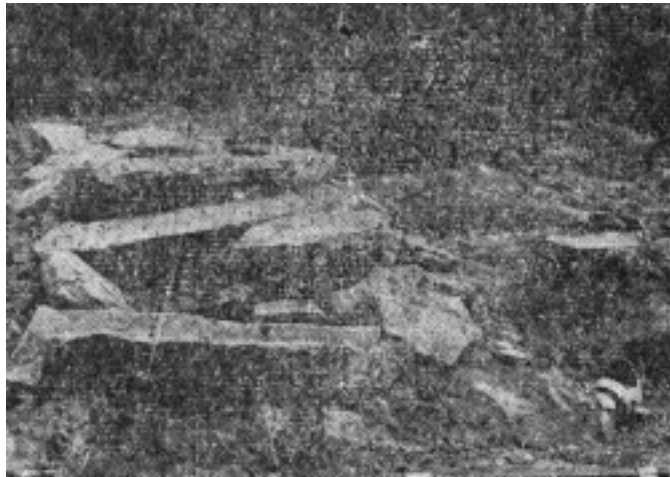
6) 仁同古墳發掘報告 慶北大學校博物館

7) 皇吾里古墳은 未發表

8) 金廷鶴 熊川貝塚研究



<웅관북편 석실내부 토기(甕棺北便 石室內部 土器)>



<웅관출토의 상황(남에서) 甕棺出土의 狀況(南에서)>



<웅관서편석실 내부토기(甕棺西便石室 內部土器)>



<응관출토의 상황(동에서) (甕棺出土의 狀況(東에서))>



<응관출토(甕棺出土) 위치도(位置圖)>